

최선을 다하고 나서

이 상 민

- 용산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4회(2015년도) 변호사시험 합격
- 법무법인 경연에서 실무수습

I. 머리말

우선 제가 이렇게 합격기를 써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 많이 걱정되지만 저의 합격수기가 현재 로스쿨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지내는 선후배님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 수기를 쓰게 된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합격수기의 의뢰를 받고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요즘 로스쿨제도를 비롯하여 사법시험 존치의 문제,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의 문제등 로스쿨과 관련하여 외부의 많은 공격과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각각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혼란말로 사다리의 논쟁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 모두 경험을 해본 저의 입장에서 저의 글이 어떻게 비쳐질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합격하여 장학금을 받고 다닐 만큼 경제적인 약자였던 저에게 두 제도에 대한 비교와 그 결론은 명확하나 그 부분은 수기에서 쓸 내용이 아닌 듯 하여 그런 부분은 생략하고 순수하게 로스쿨 생활과 변호사시험에 대한 준비에 관한 내용만 쓰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II. 로스쿨에서의 생활

1. 통학과 기숙사

저의 경우는 서울에서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까지 통학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동기들과 교수님들이 공부시간에 대한 확보나 여러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

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는 통학을 할 수 밖에 없는 집안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기에 그러한 환경에서 최대한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닌 통학시간을 뺀 20시간이라는 생각으로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헌법조문은 외우면 좋다는 생각에 그 조문을 보면서 통학하기도 했고 수험가에서 나오는 조그만 쟁점집을 보며 다니기도 했습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통학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신 집에서 다니는 편한함과 매일 가족들을 보면서 느낄수 있는 따뜻함이 오히려 수험 생활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의 이야기는 저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어서 결코 추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의 주변의 많은 동기들은 학교 열람실에서 멀지 않은 기숙사나 학교 앞 원룸등에서 자취생활을 하여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하였고 거의 모든 인원이 이번 제4회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학에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학교 즉 열람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숙사나 원룸등에서 공부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듯 합니다. 본인이 주로 공부하는 장소와 머무는 집이 멀수록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 한 듯 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학교와 자신이 머무는 곳은 가깝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아르바이트

흔히들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들 집안이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상황에 있다고 들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가정환경에서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들도 많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학부에서나 로스쿨에서나 커다란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학부에서도 좋은 집안의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로스쿨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도 시간을 아껴가며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최대한의 시간확보를 위해 대부분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로스쿨 1, 2학년을 보내면서 적어도 1개이상의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분명 공부시간에 대한 제약이 오기에 잘 선택을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활비의 문제가 있다면 국가장학재단에서의 생활비 대출이나 학교에서의 조교활동이나 장학금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여러 경로를 알아보시면 아르바이트가 아니더라도 공부하는데 지장없는 생활을 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던 로스쿨 3학년 때 조교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생활비등 경제적인 고민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반드시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수님들께 꼭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저의 경우도 상담을 통해 로스쿨 3학년을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3. 생활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이 느끼시겠지만 로스쿨에는 다양한 환경, 나이 등 정말 천차만별

의 사람들이 모여 공부를 합니다. 학부처럼 동기들이 비슷한 나이가 아닌 말 그대로 부모님 나이부터 자녀들 나이까지 모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학부와 달리 교수님들과도 자주 접촉하고 이야기도 나누기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러한 과정에서 사소한 다툼은 불가피하게 생기더라도 커다란 문제 없이 원우들 및 교수님들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게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동기나 선후배, 교수님들은 결국 저희가 변호사로서 사회에 나갔을 때 동료이자 평생 함께 볼 사람들이기에 항상 겸손하고 다툼이 없이 지내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스쿨에서의 생활은 사회생활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4. 기타

로스쿨 내에서는 많은 학회나 종교모임, 운동모임등 많은 사람들이 모임 수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인 권법학회에 가입하여 2학년때 학회장을 맡았고, 3학년 때는 기대표를 하였지만 활동하면서 공부에 지장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한 모임에서 현직에 계시는 법조인분들을 많이 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유무형의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공부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 여러 활동을 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Ⅲ. 변호사시험

1. 들어가며

이번 제4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응시인원의 누적으로 인해 역대 최저의 합격률을 기록하였고, 내년부터는 합격자수의 변동이 없는 한 아마 더 낮은 합격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부방법이나 수험서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쓰기에 앞서 저의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게 글을 읽으시는 원생들에게 도움이 될듯합니다. 저의 경우는 법학사 출신이었고 사법시험을 2년정도 준비했었습니다. 그 후 다른 일을 하다가 로스쿨에 입학을 하였고 그 공백은 3년정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 입학후에 공부를 해보니 흔히 이야기하는 생비법학도에 비해 유리한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1학년때에 국한 될 뿐 2, 3학년이 되면 적어도 학점과 관련하여 그러한 차이는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졸업이 다가와서 보는 모의고사를 비롯한 각종시험에서는 비법학사 출신 분들이 법학사 출신 분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비법학사 출신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가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수험서의 양을 줄이기 위해 얇은 교재를 찾으시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오히려 객관식 대비, 사례형대비 등 여러 교재를 보시는 것보다 각 과목별로 기본서를 정해서서 그 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서 회독수를 늘리시는게 객관식과 사례, 기록을 모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서의 반복은 객관식에 있어서 고득점을 가능하게 하고 객관식에서의 고득점을 받을 실력이라면 사례와 기록역시 큰 무리 없이 작성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 공법

저의 경우는 정선균 강사님의 행정법 액기스와 정회철 변호사님의 헌법기본서를 보았습니다. 헌법의 경우는 많은 주변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양에 대해 우려를 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다른 사례집이나 판례집 등을 보지 않아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서 시간절약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선균 강사님의 책의 경우도 각종모의고사나 기출문제의 쟁점들이 잘 담겨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형사법

형법의 경우는 신호진 강사님의 형법요론을 보았고 형사소송법의 경우는 이재철 강사님의 책을 보았습니다. 형사법의 경우는 형법의 기본이론이나 중요판례를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경우 형법적인 쟁점을 묻는 문제가 형사소송법에 비해 많은 양을 차지하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법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론을 묻는 문제보다 법조문과 판례를 묻는 문제가 비중이 높기에 강약의 조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경우 중요 쟁점위주로 나오기에 그런 부분위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형사법의 경우 객관식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과목이므로 충분한 준비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형사특별법의 경우 별도의 교재나 강의를 통한 공부보다 로스쿨 내의 수업과정을 통해 준비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도 학교에서의 형사특별법 수업을 통해 공부한 내용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4. 민사법

워낙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민사법이라 사실 흔히 말하는 대세의 교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민법의 경우는 지원림 교수님과 송영근 변호사님의 기본서를 보았으나 워낙 방대한 양이라 분명 수험적합성에 대한 의문은 많이들 가지실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강사분들의 책을 보기전에 1, 2학년때 이러한 기본서들을 꼭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3학년이 되어 요약서등을 보시는 건 시간에 대한 압박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저학년때는 기본서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사례형에서 위험부담과 관련하여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마지막에 본 요약서에는 별 내용이 없었으나 기본서의 내용을 기억하여 작성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학년 분들은 반드시 기본서를 일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저는 이창현 강사님의 교재를 보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교재를 보았어도 큰 차이는 없을 듯 하므로 본인이 보기에 편한 교재를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법의 경우는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실무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므로 교수님들의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법의 경우 송옥렬 교수님의 책을 보았으나 주변의 경우 김혁봉, 장원석강사님등의 교재를 보고도 합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기에 이 역시 본인이 보기에 편한 교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올해 사례에서 어음·수표법에 관한 문제가 나왔으므로 상법에서도 회사법 위주가 아닌 상법총칙이나 어음·수표법등 이러한 부분역시 신경써서 보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상·보험법의 경우는 객관식이 아닌 사례나 기록형에는 출제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 역시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항상 본인이 속한 학교의 교수님들의 강의나 외부 교수님들의 특강등을 들으시면서 출제 예상과 관련된 정보를 숙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학교 수업

제가 졸업한 아주대 로스쿨의 경우 높은 합격률을 자랑합니다. 그러한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마련한 시스템을 잘 따라가는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학교수업에서 기본서등의 교재로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PPT나 교수님의 자료등으로 수업하는 경우도 많은 걸로 압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 수업 후 관련내용을 본인이 선택한 기본서로 다시 한번 복습하면 교수님들의 자료와 기본서의 시너지 효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교 수업내용에 충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3학년이 되면 학교에서 졸업사정에 사용하기 위해 전국모의고사나 자체 모의고사등을 봅니다. 그런 부분에 출제된 쟁점들은 실제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교수님들의 강평이나 특강등에 반드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사 실제 출제가 안되더라도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복습하고 보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므로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IV. 마치며

우선 저의 합격수기가 이 글을 읽으시는 수험생 분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제가 3년간 더구나 여러 악조건에서 공부를 했던 입장으로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면 하는 마음에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글의 내용이나 형식 등이 많이 부족해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자들의 공부를 위해 수없이 많은 자료와 열정적인 강의로 너무나도 큰 가르침을 주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최진안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 같이 입학하여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항상 옆에서 힘을 준 규호, 영혁, 희찬, 상혁이형, 국현,

서유, 동은, 준석이형등을 비롯한 우리 4기 동기분들과 먼저 법조인의 길을 가시면서 항상 격려와 위로를 통해 너무나도 든든하게 해주었던 석영이형과 우리 선배님들, 후배지만 오히려 항상 든든하게 격려 해준 덕균이와 현지를 비롯한 후배님들. 언제든 만나도 웃을 수 있는 록수형, 재구, 주현, 재욱, 경훈, 성윤이를 비롯한 어우름 식구들,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이 불편하시면서도 항상 아들 걱정 해주신 어머니, 동생 공부하는데 뒤에서 너무도 큰 힘이 된 누나와 매형을 비롯한 우리 가족들에게 이 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로스쿨 식구들에게 부족한 저의 글이 아무쪼록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